

연중 제2주일

제 1독서 : 이사 49, 3. 5-6

제 2독서 : 1고린 1, 1-3

복 음 : 요한 1, 29-34

순정이

“너는 나의 종,
너에게서 나의 영광이
빛나라”
(이사 49,3).

강론

“종처럼…”

이순성 신부 / 광주가톨릭대학

우리나라 사람은 누구나 인격적으로 평등하다. 그러나 그 평등을 체험하는 것은 모두가 똑같은 권리와 책임을 가질 때이다. 권리 따로 책임 따로도 아니고 권리가 먼저이고 책임이 다음인 것도 아닌 오로지 책임을 다함으로써 권리를 행사하며 또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책임을 전제로 하는 그런 때인 것이다. 요컨대 인격의 평등은 모든 사람이 권리와 책임의 동시적 수행 안에서만 체험된다고 봐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평등하다는 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동시적 권리와 책임의 수행을 통해서 인격적 평등을 체험하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준다.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권리와 그 아들다움이라는 책임으로 인해서 인류 전체가 평등하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그런데 오늘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인들이 권리와 책임 수행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닦아야 할 전형으로서의 모습이 어떤 것이어야 할지 밝혀주고 있다. 그것은 놀라움에도 ‘종의 모습’이다. 현실 안에서 인격적 평등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뜻밖의 메시지인 셈이다. 하필 불평등한 인격의 대명사인 ‘종’의 모습이란 말인가? 그것도 오늘날 우리 사회 안에 있지도 않고 또 있어서도 안되는 ‘종’의 모습이란 말인가? 한마디로 모순의 삶을 살라는 말이 아닌가?

그렇다. 메시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라고 강조한다. 결코 ‘종’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종’처럼,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처럼 살고자 하기에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그분처럼 철저하게 모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그분은 하느님이심에도 인간이, 그것도 ‘종’처럼 되신 분이시다. ‘낮추고 비움’에 있어 그분과 같은 예는 없었다. 하지만 그렇게 낮추고 비움으로써 그분은 아버지의 영광과 구원을 드러내는 빛이 되셨다. 모순인 것이다. 바로 그 모순의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의 메시지가 밝혀주듯이 ‘종’처럼 ‘낮추고 비움’으로써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권리와 그분의 아들됨의 책임을 다하는 가운데 온 인류가 평등한 인격으로서 그리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하느님의 영광과 구원을 드러내는 오늘의 ‘빛’이 되어야 한다.

소리

“누구 말이 옳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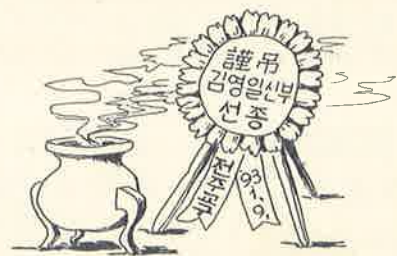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던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정치활동비용을 공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꼭 필요한 경비만 쓰고, 경조사에는 단돈 만원도 안 쓰는 구두쇠 노릇을 했다고 한다. 그랬어도 한달에 천만원 정도가 들었다고 한다. 이를 나라가 주는 세비로 감당하기에는 어렵도 없는 일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나머지는 친지 등이 도와주는 후원성금이나 중앙당의 지원금으로도 모자라서 빚을 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판이니 생활비 정도는 부인의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이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어찌서 빚지고 사는 국회의원이 되려고 기를 쓰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더군다나 얼마 전에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돈을 너무 써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후보가 옥중 당선이 된 뒤에 선고유예판결로 면책되었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의원이 뭐길래,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대통령 후보들이 지난 선거에서 쓴 선거비용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고, 그 내용이 공개되었다. 가장 많이 쓴 경우가 여당 후보의 284억이고, 재벌당이라는 국민당 후보는 220억원을 썼다고 한다. 소문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곧이곧대로 믿기가 어렵다. 소문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구당에 많게는 10억원까지 썼다고 한다. 국민당은 회사의 비자금에 선거에 쓰여졌다고 해서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법정 한도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선거비용을 썼다니, 아무리 보아도 오리발 같기만 하다.

甲

순정이 신책



편히 쉬소서...

일치주간을 맞이하여

“소명에 충실한 신앙인이 됩시다”

한일신학교 졸업생 문 한 나

한국교회 안에서는 매년 1월 18일부터 25일까지를 그리스도교 일치주간으로 정하고 갈라진 형제(개신교 종파)와의 일치를 도모하고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급년에도 갈라진 형제들과의 일치를 나누기 위한 방법으로 개신교 형제가 말하는 그리스도교 일치에 대한 글을 아래에 실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일치를 나눌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주신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레미야는 기원 전 600년경을 전후로 하여 유다가 바빌론에 의하여 멸망되는 현장을 지켜보며 마음 아파했던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서의 말씀으로 예레미야 자신의 소명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소명은 자신의 기원을 생각하게 합니다. 소명은 생명의 기원인 하느님께 우리의 눈길을 돌리게 하고 있습니다. 소명은 영원한 세계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말씀에 야훼 하느님께서 예레미야를 만방의 선지자로 택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자신은 미약한 어린 아이라 어찌할 수 없는 존재였으나 야훼 하느님께서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구별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써 신비로움을 지닌 우리 신앙인들은 교회간의 일치를 도모하기 전에 그리스도와의 일치에 힘쓰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얼마 전 두 분의 환영미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멀리 타국에서 50년의 선교 활동으로 살아 계신 순교자의 모습이요 한 분은 분단의 벽을 넘었다는 오명으로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석방되신 두 분의 환영미사였습니다. 그날 미사에 참여한 많은 분들 가슴속에 그리스도의 소명에 충신했던 두 사제의 모습에서 새로운 신앙의 각오가 있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두 신부님 역시 처음 명을 받았을 때 예레미야가 야훼 하느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심경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뜻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쓴잔을 마지막까지 감당하심으로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하느님과 일치를

나눌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주신 모습을 두 신부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고통의 상황에 처한 그에게 하느님께서 소명을 확인해주고 당신께서 친히 보루가 되어 주시겠다고 확인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자의 보장을 받은 신앙인은 결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절대자와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바쳤다면 그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러한 보람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며 소명의 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이 꼭 이룩해야 할 임무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일차적 소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 어떠한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느님의 사람, 확신의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와의 일치에 노력을 하여야겠습니다. 기쁨이 넘치고 많은 이들 가슴속에 새로운 소명을 심게 해준 평화의 잔치에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고자 원하는 교회들(개신교면 어떻고 천주교면 어떠하겠나)이 함께 모여서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이 환영미사에 참여한 나에게 가슴속 깊이 와 닿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끝까지 당신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삶은 사랑 자체인 것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 자신이며 그리스도와 우리를 묶는 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서로 다르고, 다양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은 마땅히 사랑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랑은 신앙인의 열이며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희망은 미래를 위한 선택이며 결단인데 반해 사랑은 바로 선택과 결단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순간에 충실하면서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늘 소명을 지니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느끼며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현대 미용학원
미용·피부, 본과, 연구과
김금순 (데레사)
진북동 제일예식장 맞은편
☎ 86-2211,254-3003

축! 개소
서울우유
전주 서신보급소
손인호(프란치스코)
서미숙(안나)
전주시 서신동 한일고등학교 앞
☎ 71-0987

등유·경유 정확 신속 배달
장춘주유소
장춘식(마리오)
김경자(데레사)
☎ 291-3344

노령기획
신용조합 행사용품, 각종 단체 행사 기념품, 각종 개업 답례품 및 판촉물 김배근(스테파노)
월드컵 사거리 ↔ 다가동 파출소
☎ (0652)82-6224
FAX(0652)85-6224

잠깐

“대학입시가 뭐길래”

우리 교구가 설립한 해성학교에 대한 평가가 다양각색이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교육 현실의 단적인 모습일 것이다. 그것은 학교교육이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전락되었다는 비판과 떼어놓고 보아서는 안된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교회가 학교를 세운 설립 이념(하느님 모상을 지향하는 전인교육)과의 조화를 이루고자 애쓰는 우리 교구가 세운 학교들의 노력은 장하기만 하다.

해성고등학교는 이번에 서울대(12명)를 비롯한 고려대·연세대 등 서울에 소재한 대학교에 112명, 과기대와 사관학교에 3명, 전북대(127명)와 원광대(58명) 등 도내 대학교에 209명, 조선대 의대와 광주가톨릭대학 등에 11명을 합격시키는 등 전기에서만 345명의 합격자를 냈다. 그중에도 원광대 한의학과를 지원한 박길호 군은 전체 수석(328점)을 차지하기도 했다.

흔히 학교의 우열을 말할 때, 사람들은 물량위주로만 따져 합격자의 숫자로 평가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기준(학급수)이 없다. 이것은 12학급 학교, 10학급 학교, 8학급 학교를 동일 기준으로 평가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셈이다. 이렇게 따져볼 때, 8학급인 해성고등학교 성적은 매우 우수한 편이다.

이번에 해성고등학교는 삼천동 계룡산자락으로 학교를 옮기면서 마련한 기숙사가 제 구실을 톡톡히 해내 즐거운 화제가 되고 있다. 사연인즉, 3학년 기숙사생이 64명인데, 이들 가운데 61명이 합격을 한 것이다. 이는 밝은 전망의 예고로 보아도 틀림이 없겠으나 한정된 수용 능력이 아쉬울 뿐이다.

한편 해성중학교도 전국의 중학생이 겨루는 경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금상(물리)과 동상(과학상자조립)을 타는 등 학생들의 지도에 남다른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해성학교는 해마다 2백여명의 영세자를 내며 복음선포에도 힘쓰고 있다.

교구 소식

※ 어린이들을 위한 영화상영 : 1월18일(월) 오후2시 교구청 별관 1층, 제목-천사들의 합창.

- 1. 축! 광주가톨릭대학 합격자 : 박성문(요한·서신동), 김일(오딜론·평화동), 양승욱(로벨도·부안), 송종민(모이세·신대인), 하태익(바르나바·서학동), 박문수(막시미노·용안), 박상욱(베드로·영등동), 서중열(스테파노·인후동), 원종훈(시메온·호성동), 이동열(모이세·노송동), 김남기(우르시노·나운동), 정동수(안드레아·나운동), 정범수(베네딕도·요촌).
- 2. 교구청 구정 휴무 : 1월22일-23일.
- 3. 교도소 사목후원회 정기 총회 : 1월18일(월) 오전10시30분 가톨릭센터 3층 회의실.
- 4. FAX 번호 안내 : 인후동 성당 84-8317, 둔율동 성당 42-0029.
- 5. 레지아 1단계 기사 교육 : 1월18일-20일 천호 피정의 집.

※축! 영명 : 17일(성안토니오) 김진룡, 최용준 신부님.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탈수기 사용을 절제합시다

급히 입을 옷이 아닌데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탈수기를 사용합니다. 탈수기의 사용을 꾸준히 줄여가면 많은 양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요심이 (1015) 김병오



감사합니다

고 김영일(아우구스티노) 신부님의 장례미사에 참석해주시고 도와 주신 모든 신부님, 수녀님, 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유가족 드림

커텐장식·혼수이불·홀패션

천지방

교우 여러분은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김대원(프란치스코) 박혜순(헬레나) 숲정이 성당 ↔ 현대APT 중간 ☎ 77-3519, 253-2461

가야금 연구소

가야금, 판소리, 가야금 병창 초·중·고 일반 수시 접수 원장 김정순(스콜라스티카) 기린오피스텔 앞 ☎ 84-7103

MC² 엠·씨 스퀘어

액정비전·OHP·스크린 어학학습기(닥터위콤)·휴대폰

김인수(요셉)

한진고속 옆 기린상가 내

☎ 251-1873~4

결혼·약혼·파티복·남복 고려주단 한복싸롱

전광원(마르코) 김소피아 전주시 원신구 교시동 1가 120-4 (신촌 예식장 골목) ☎ 88-1902

각종 가스렌지 시설, 신속 배달

성심가스

태운선(라파엘) 황해숙(요한나)

신동성당 앞

☎ (0653)857-5120~1

1993학년도 유치부

원아모집

호남유년종합학원 252-7313 새호남유년종합학원 253-1411 호지유년종합학원 221-8331 원장 유병철(베드로) 원감 박경애(안젤라)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 랑
수녀원 82-9662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김 동 주

- ※ 주일헌금 배가운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1. 구정 미사시간 안내 : 새벽5시30분, 저녁7시(특전미사)
 2. 구정합동 위령미사 : 22일까지. 선영을 위하여 정성껏 봉헌합니다. 3. 반회장 강집 : 중노7만, 박옥혜(앨리스벳)-이옥희(안젤라) 수고하시겠습니까.
 4. 예비자교리 : 오늘부터. 일요일-장엄미사 후. 수요일-저녁미사 후. 중·고생-일요일 후3시30분.
 5. 모임 : ①여성연합회(19일 어머니미사 후)
 6. 92년도 교부금 미납되신분은 완납바랍니다.
 7. 금주청소 : 남노2, 3번.
차주청소 : 남노4, 5번.
- 지난주 봉헌금 : 1,068,720원 □ 교무금 : 1,219,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이 상 인

1. 구정 합동 위령미사 : 23일(토) 오전10시30분, 오후4시, 오후7시. 선영들을 위해 정성어린 미사 봉헌바랍니다.
 2. 사목회 임원 사목교서 연수 : 오늘 오전10시 전동 성당.
 3. 성우회 : 공식미사 후.
금주전례 : 유두석, 독서-정동민씨 부부, 봉헌-라경섭씨 가족.
- 설날전례 :** 황만금, 독서-신일관씨 부부, 봉헌-오장수씨 가족.
차주전례 : 정승훈, 독서-라경섭씨 부부, 봉헌-안철조씨 가족.
- 지난주 봉헌금 : 616,420원 □ 교무금 : 786,85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이 수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한 동 옥

- ※ 피정종인 부제님을 위해 많은 기도바랍니다.**
1. 구정 합동 위령 미사 : 23일 전10 : 40분, 미사예물 접수하세요.
 2. 봉성체 : 19일(화) 3. 청년회, 성가정회 : 공식미사 후.
 4. 본당발전을 위한 헌금 : 다음주
 5. 초봉헌 : 사무실에 접수하세요.
 6. 설서읽기 : 시편81편~90편 7. 금주청소 : 성실하신 동정녀Pr.
 7. 금주전례 : 해설-이미숙, 독서①남현준 ②김미남
봉헌-최경림, 김대권씨 부부.
- 설날전례 :** 해설-이옥동, 독서①강덕용 ②김갑자
봉헌-하태중, 이명수씨 부부.
차주전례 : 유만순, 독서①박귀철 ②장수재
봉헌-유순천, 유춘근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338,580원 □ 교무금 : 251,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서 석 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김 명 웅

- ※ 연중 제2주일 ! 지난해를 반성하며 새해에 주님의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1. 회의 : ①성모회-오늘 공식미사 후.
 2. 알림 : ①전례부-1월21일(목) 오후8시(전원 참석바람)
 3. 알림 : ①봉성체-1월20일(수)
②설날 합동 위령미사 예물접수-사무실에 접수(1월22일 까지) 설날 대축일미사-설날(23일)오전10시30분, 오후4시(어린이미사) 오후7시(학생미사)
③설 대축일도 신자의 의무 축일이므로 미사에 꼭 참여해야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 758,700원 □ 교무금 : 564,0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 정 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1. 오늘 2차 헌금 : 임복만 신부님을 모시고 있던 김시문, 김수산나 부부를 위해서.
 2. 2월2일 주의 봉헌 축일에 초 봉헌 : 사무실에 접수바람.
* 구정 합동 위령미사 접수 : 사무실에.
미사시간 안내 : 1월22일-10시30분
23일-구정 위령미사(10시30분만)
24일-10시30분, 저녁7시30분만.
 3. 청소봉사 : 5구역 3번, 4번.
- 지난주 봉헌금 : 690,2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김 봉 회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정 삼 권
유치원 84-8347 FAX 82-9234 사목회장이 열 매

1. 금주 : ①중국에서 임신부님을 도와오신 평신도 돕기 2차 헌금 있음. ②교구장 사목교서 연수회(전10시~후4시30분, 사목회 임원참석, 본당) ③바비의 성모Cu(후2시) ④청년연합회 정기총회(저녁미사 후)
 2. 성모회 : 18일 후6시. 3. 성모회 : 20일 전11시.
 4. 구정 합동미사 접수 : 22일까지 사무실.
 5. 설 대축일 미사 : 23일 전5 : 30분, 전10 : 30분(공식미사)-후7시
 6. "천사의 집"이전 : 성당 정문 앞.
 7. 전동성서교실 : 매주 수요일 후8시. 장소-사제관 2층 회합실.
 8. 명화상영 : 매주 수요일, 후7시30분.
 9. 감사합니다 : 행렬용 십자가(30만원) 기증-유근수(벨라도)
 10. 제단체 변동사항 사무실에 연락기재 바람.
- 지난주 봉헌금 : 1,941,46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이 재 후
FAX 82-6686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김 상 근

- ※ 설날 미사시간 : 새벽5시, 10시30분(위령 합동미사) 후3시 어린 미사 7시30분 선영을 위해 정성을 드립니다.**
1. 구역미사 : 19일-14구역3번-후8시, 20일-14구역6번-후3시.
 2. 은퇴 신부님 방문 및 이웃돕기 : 21일 은인을 험조바랍니다.
 3. 교도소 사목후원회 정기총회 : 18일 센터3층 전10시30분.
 4. 회의 : 성모회-20일 어머니미사 후. 청년회-오늘 저녁미사 후.
 5. 구역(반)미사가 예정되었습니다. 구역 반회장님께서는 사무실에 미사장소를 접수바랍니다.
 6. 밀알회 회원모집 및 모임일시 : 매주 금요일 저녁미사 후.
 7. 각종 의무금(교부금)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8. 각 분과위원회 회의 : 18일 후8시 각 위원장은 위원을 소집.
- 지난주 봉헌금 : 1,154,110원 □ 교무금 : 1,126,0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한 병 갑

1. 오늘 : 자모회-미사 후. 교구장 사목교서연수-사목회 임원.
2. 반모임 : 19일(화)오전-성원골드, 오후-한양윤남. 저녁-삼정1,3. 20일(수)오전-화산1, 오후-신일. 21일(목)오전-거성그린1, 오후-거성그린2.
3. 설날 미사안내 : 23일(토) 오전10시30분(어린이·특전미사 없음)
4. 중고동계수련회 : 25일(월)~27일(수) 2박3일. 장소-적포(생활체험과 교육의 연장이오니 부모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5. 교부금 수입과 교적정리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6. 초중고 교리교사들 모집합니다-사무실에 접수바랍니다.
7. 금주전례 : 한병갑, 독서·봉헌-김정애, 박태수.
차주전례 : 최정순, 독서·봉헌-송터순, 송훈식.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김 치 삼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서 석 회
사목회장이 동 섭

- ※ 오늘은 연중 제2주일(임복만 바오로신부님과 그 일행을 위한 2차 헌금)**
1. 꾸리아 : 27일(수) 오전10시.
 2. 꼬미시움 : 30일(토) 오후3시.
 3. 자모회 : 20일(수) 전10시.
* 92년도 교부금 완납을 부탁드리며 신년도 교부금은 효자동 모든 세대가 한세대도 빠짐없이 작은 금액이라도 봉헌하시어 주님사업에 정성을 다합니다.
* 관광성사는 1월중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 미사안내 : 금주-하늘의 문, 사랑하움 모후, 차주-평화의 모후, 인자하심 모친.
- 지난주 봉헌금 : 1,478,260원 □ 교무금 : 705,000원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 순 태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엄 익 도

1. 모임안내 : ①성전건축 상임위원회-공식미사 후
②제대회-22(금) 10시미사 후
 2. 구정 합동미사 예물 : 선영을 위하여 정성껏 기도합니다.
(미사시간-6 : 30, 10 : 30, 4 : 00, 7 : 00)
금주전례 : 해설-박명래, 독서-①김자옥 ②이병희
봉헌·안내-김인곤 부부, 권일만 부부
차주전례 : 해설-이한은, 독서-①엄익도 ②정영호
봉헌·안내-권병태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1,421,480원 □ 교무금 : 1,668,000원